

# ‘한국현대시 100년’ 등 행사 풍성

### 2007만해축전, 8월 11~13일까지 만해마을서 만해상시상·국내외 시인 시낭송·학술행사 등



지난해 열린 만해축전 모습. 올해 축전에서는 국제 문학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시인이자 사상가, 승려이자 민중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07 만해축전’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제1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만해대상·유심작품상 수상자 시비 제막식,

시인학교, 고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시상식, 시조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만해대상 수상자는 엘지지 오마르 붓고 온담바(72) 가봉공화국 대통령(평화부문), 시인 김남조(80) 숙명여대 명예교수(문학부문), 문학평론가 유종호(72) 연세대 석좌교수(학술부문), 루이스 R. 랭카스터(74) 前 버클리대 교수(포교부문), 네팔기자연맹(FNJ)과 회장 비쉬누 니스트리(실천부문), 서인혁(68) 국술원 총재(특별부문) 등이다.

이번 만해축전의 특별 이벤트는 올해 한국현대시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국제 문학행사다.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는 26일 “올해는 현대시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1908년)’가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현대시 100년의 역사를 자축하고 한국시인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제 문학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시아 시인의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정희, 김중길, 김중해, 김광림, 예연빈(중국), 사가와 아끼(일본), 제 바트바타(몽골) 등 국내외 시인 20여 명이 참가해 시를 낭송한다. 이외에도 방민호(서울대 국문과), 박찬일(추계예술대 문장과), 박현수(경북대 국문과), 이가린(인하대 불문과) 교수, 미국의 데이비드 맥켄(하버드대 한국연구소장), 채코의 이바나 그루베 로바(한국시 번역가 등 학계 인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만해마을 대강당에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문학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축사를 예정이다. (033)462-2304.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 김창배 화백 ‘달마와 차목화’展

# 웃고 춤추는 달마!



깨달은 달마.

근엄하기만 한 달마가 웃거나 춤을 춘다?

‘춤추는 달마’, ‘웃는 달마’ 등 담원 김창배 화백만의 해석이 깃든 달마 그림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달마와 차목화’ 전시회를 인사동 중앙미술관에서 8월 8일까지 연다.

1999년 <한국의 달마>를 펴냈던 김 화백은 8년 만에 달마도 300여 점에, 중국 소림사 풍경을 새로 가미한 <세상의 모든 달마>를 발간했다. 화첩 작품 중 ‘척리서거 달마’, ‘백의 달마’, ‘깨달은 달마’ 등 108점이 벽에 걸린다. 한편 김창배 화백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평화통일불사리탑에

##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展 국립경주박물관, 9월 2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최근 발굴된 신라와 백제시대 유적지 17곳에서 나온 2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며 도성, 궁궐, 사찰, 생산시설, 무덤 등은 모형으로 복원돼 공개된다.

또 전시기간 경주박물관과 경주문화재단 연구소 연구원들이 신라왕경 유적의 발굴성과, 사천왕사지 발굴성과, 최근에 발굴된 신라 및 백제의 기와, 신라의 공방유적, 신라 및 백제 불교미술품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발굴된 유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전시는 최근 출토된 유물들로 구성됐다”면서 “발굴 현장의 성과와 경험, 전시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전국은 지금 연꽃 축제중



7월말부터 8월 중순 전국이 연꽃세계에 빠진다. 연꽃축제에서는 연꽃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화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 연꽃이 눈부림을 가득 채운 모습이 장관이다. 음악회도 열린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032)934-8484

△무안 백련 대축제 전남 무안군 회산 백련지는 중앙 최대 백련서지다. 이곳에서 8월 11일~15일 ‘무안 백련 대축제’가 열린다.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061-450-5226)

△김제 하소백련 축제 ‘백련, 빛과 색’이라는 주제로 전북 김제시 청운사에서 8월 30일까지 열린다. 청운사 남쪽 3만평 백련지에 흰 연꽃이 활짝 핀다. 청운사도 원스님의 불화전 등 전국 유명 예술인들의 전시회가 함께 있다. (김제시 문화공보실 063-540-3172)

# 하나의 주제 전통·창작춤 동시 공연

국립무용단(예술감독 배정혜) 신예들의 전통과 창작, 그리고 해설이 있는 춤무대 ‘바리바리춤디딤새’가 8월 16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바리바리춤디딤새’는 ‘춤추하게 내 밭은 짚은 밭동작’을 뜻하는 말로 예쁘게 웃은 비선발이 밭게 앞뒤로 움직이며 춤추는, 한국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말 중의 하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젊은 한국춤 무용가들이 한국 무용계, 나아가 세계 무용계에 내딛는 ‘바리바리춤디딤새’로 평가된다.

이 공연은 출연자가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한국춤 작품을 하나 추고, 그 의미와 방식, 철학 등을 설명한 뒤 이를 응용한 창작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은고지신(溫故知新)의 이론과 실제가 살아있는 젊은 무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춤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참여자를 국립무용단 소속 무용가들뿐 아니라 전체 한국춤 무용가로 영역을 넓히는 등 치열한 경쟁을 유도, 작품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8월1·2일 국립무용단 문정숙씨가 이



바리공주의 신화를 소재로한 전통 창작춤 ‘바리’.

배망부 살풀이의 내재된 신령을 시연, 분석한 뒤 창작춤 ‘그래도 세상은...’ △4·5일 국립무용단 박기환씨가 봉산탈춤을 추고 이 탈춤의 유래와 연출 형식을 설명한 뒤 창작춤 ‘99일’ △8·9일 리움무용단 김선영씨가 김숙자류 도살풀이를 추고 유래와 함께 살풀이에 남아있는 국의 형식을 살피면 뒤 창작춤 ‘무(巫)’ △11·12일 태

혜신무용단의 태혜신씨가 서울 새남굿과 이를 바탕으로 바리공주의 신화를 소재로 한 창작춤 ‘바리’ △15·16일 류무용단 대표 유영수씨가 남생 한량무의 전라제와 경상제를 비교한 뒤 창작춤 ‘풍경(風景)의 문환(夢幻)’ 등을 무대에 올린다. (02)2280-4114

김주일 기자



### 한국춤 전제로 확대 경쟁 치열 수준 향상

### ‘바리바리춤디딤새’ 서울 별오름극장 8월 16일까지

##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⑧

### 운달산 금선암

정인성 시인

청산에 들면 숨소리도 푸르다  
금강나무 몇오루  
몸통이 속으로 울려 앉은 것 같다

청산에 들면 핏줄이 고요하다  
정갈해진 몸속에  
법당 한 채 세울 자리 있을 것 같다



금선암(金仙庵)-원시림이 짙푸른 운달산 정상에 자리한 단칸집 일자. 보이는 것이란고 푸른 하늘과 푸른 숲 뿐인 완벽한 녹색 공간이다.

元 · 氣 · 回 · 復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몰카와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정처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정처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류증, 정자결핍, 정유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삼새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www.sungjongsa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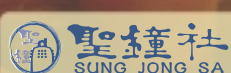
#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관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관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통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양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좌위치와 실제 당좌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좌 가늠시 맥놀이도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씨의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전사관: 서울서 종포구 전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북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 대 표: 범종 원장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관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